



노유찬군이 카드를 활용한 멋진 퍼포먼스를 선사하고 있다.



사회를 맡은 방송인 유진씨가 경연의 시작과 함께 미소를 짓고 있다.



프로마술사 두창균씨의 축하무대.



경연의 마지막 참가자인 최민재군이 섀클리스와 카드를 활용한 묘기로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다.



임채하양이 감동적인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 속임수 아닌 상상력 웃음·감동의 '매직'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회장 김승곤)이 주최하고 전주시와 전주매일신문이 후원한 '제12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가 지난 25일 효자동 바울센터 그레이스홀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지난 4월 해제됨에 따라 올해는 대면으로 진행됐다.

방송인 유진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경연대회에서 전국 각지에 온 어린이·청소년 마술 꿈나무들 10명이 참가해 카드·공·스카프·마술 지팡이 등을 활용해 자신들의 묘기를 선보였다.



김윤찬군이 훌뿌리기 마술쇼로 자신의 공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공을 이용한 마술쇼를 선보이는 이경근군.



멋진 묘기를 선보이는 박현군.



힘있는 무대를 펼치는 이정원군.



경연대회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전자와 유리잔을 활용한 묘기를 선보이는 김혜리양.



조민재군의 카리스마 있는 무대.



자신의 진짜 묘기를 선보이겠다는 듯 기합소리를 내고 있는 이주열군.

“여러분들의 입상을 축하드립니다”

▶ 대상 - 최민재 ◀

▶ 최우수상 - 김윤찬 ◀

▶ 우수상 - 이정원 ◀

▶ 장려상 - 이주열 ◀

▶ 인기상 - 이경근 ◀

▶ 특별상 - 노유찬 ◀

